



동요가 울려 퍼지는 세상

김정철/색동요작곡가·어린이노래그룹 '작은평화' 대표, 한국동요음악연구회 사무국장

동

요작곡과 보급활동을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회담 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부르는 노래가 바로 동요 <우리의 소원>이었으며, 남북분단 50년만에 이루어진 이산가족의 감격적인 상봉현장에서 열산안고 함께 부른 노래 역시 동요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안석주 작사·안병원 작곡)은 1947년에 KBS의 전신인 중앙방송국의 어린이시각에서 3·1절 특집 노래극을 만들면서 주제곡으로 탄생된 동요인데, 이후 50여 년 동안 남북한 온 겨레가 통일 염원을 담아 애창하는 겨레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고향의 봄>은 우리 나라 서양음악의 선구자인 흥남파(1897~1941) 선생에 의해 1920년대 후반에 발표된 동요인데, 이 노래 역시 남북한에서 남녀노소가 함께 부르는 겨레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지난 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주최한 <엄마 짓이 최고!> 노래말 경연대회(노래말 바꿔부르기)에서 출품작이 가장 많은 장르 또한 <섬집 아기> <옹달샘> <초록빛 바다> <옥수수 하모니카> 등의 동요였습니다. 엄마·아빠의 아기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기에는 동요가 제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린이가 동요를 부르지 않고 성인 가수들의 노래를 흥내내어 부르는 것이 보기 민망하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이가 동요를 열심히 부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애쓰는 사람은 더욱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가 동요를 잘 부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전파매체가 발달하면서 대중가요와 CM송 등 현란한 상업음악이 홍수를 이루어 차츰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빼앗아 가니 동요는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점점 늘게 된 것이지요.

늘 누군가를 우상으로 삼고 싶어하는 어린이들 인만큼 자기가 좋아하는 인기가수의 노래를 즐기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공부하기 좋아하는 어린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싫어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 있듯이 어린 시절 - 특히, 초등학교 때에는 반드시 동요를 많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동요의 노랫말은 아름답고 순수하며 문학성이 뛰어난 시로 되어 있어서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간직하고 자라게 해 줍니다.

어린이 되어서도 동심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동심으로 살고 싶은 우리 모두의 노래가 바로 동요'라고 믿고 동요보급을 위해 오늘도 이리저리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노래로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구호를 외치며 1994년에 어린이노래그룹 '작은평화'를 창단하여 주로 동요를 부르며 공연활동을 하고 있는데, 해가 갈수록 출연요청이 늘고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돈도 잘 벌리지 않는 일을 한다며 '동요에 미친 사람'이라 하더니 언젠가 부터는 '동요계의 마당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요박사'라는 영예로운 별명으로 불려주기에 이르렀습니다.

동요를 부르면서 어릴 적 해맑은 동심의 세계로 다시 한 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